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김대건 신부 ⑤

전번 호에 이어 신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복재판록’[2011~2012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대조역주본]을 바탕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대건 신부, 황해도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다 (1845년 6월)

김 신부 일행이 체포되어 압송된 사정에 대해서는 시복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많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중 김 신부와 같이 체포되었던 선장 임성실 베드로[1880년 사망]의 가족과 지인, 같이 배를 타고 서해로 갔던 신자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지도] 김대건 신부의 서해 탐사와 체포 및 압송

임성실 베드로의 누이동생인 임 안나[67회차 증인]와 처제인 이 데레사[61회차]는 김대건 신부 체포 사정을 임성실에게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성실의 외종사촌인 김 마리아[89회차]와 사돈 관계인 원 마리아[93회차], 지인 박 가이아나[91회차]는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임성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가

능성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서해 탐사에 참여했던 김성서 요아킴[72회차]과 박성철 베드로[84회차]는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김성서의 아내인 함 막달레나[51회차]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남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성실의 지인인 박순집 베드로는 임성실과 김성서 등 김 신부 일행에게서 당시 체포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프란치스코[81회차]도 김 신부 배에 탔던 사공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서 야고보[95회차], 이 베드로[97회차], 최 베드로[100회차], 이 마리아[102회차]도 김대건 신부 체포 사정을 진술했습니다.

김대건 신부 일행이 배를 타고 시골[황해도]로 내려갔다가 군사들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증인들의 진술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신부 일행이 황해도로 간 목적에 대해서는 선교사제 영입을 위한 경로 탐색이었다는 증언[51회차 함 막달레나, 서양에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증언[81회차 김 프란치스코, 100회차 최 베드로], 이 두 목적을 모두 진술한 증언[72회차 김성서], 서양 배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증언[95회차 서 야고보]이 확인됩니다. 당시 탐사 여행에 참여했던 김성서의 증언이 사실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일행의 배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정박했던 곳[순위도]에서 배잡이령이 내려져 민간 어선이 징발될 때 김 신부가 이를 거부하자 군사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서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군사들이 김 신부를 ‘타국 사람’[밀입국재]으로 알고 체포했다고 대부분 증인들이 진술했습니다.[51회차 함 막달레나, 81회차 김 프란치스코, 84회차 박성철 베드로, 86회차 박순집 베드로, 89회차 김 마리아, 100회차 최 베드로] 시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성교(聖敎, 천주교) 봉행하는’ 사실이 드러나 잡혀갔다는 진술도 있습니다.[95회차 서 야고보] 그중 최 베드로는 실랑이 중에 김 신부의 상투가 군사들에게 잡히면서 머리카락이 풀어지자 타국 사람임이 드러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프란치스코는 김 신부의 말이 서투라서 군사들이 타국 사람으로 알고 잡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김대건 신부의 일행이었던 김성서[72회차]와 박성철[84회차]은 김 신부를 포함해 8명이 배에 탔었고, 김 신부와 임성실[관찬 기록에는 ‘임성룡’], 사공 엄 서방[관찬 기록에는 ‘엄수’] 등이 체포될 때 둘이서 작은 배를 타고 도망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서는 배잡이령이 내려졌을 때 김 신부가 “호령 하시어 (배잡이령을 내린 무관인) 첩사(僉事)더러 ‘너’라 하거늘 첩사가 노하여 관차(官差, 관아의 아전)를 보내어 배 임자와 사공을 잡으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 명이 배 위로 뛰어올라와 서울 양반이라고 하여 진장(鎭將)[첩사]를 공갈하면서 ‘너’라고 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말하는 것을 듣고 얼굴 모양을 보니 아주 수상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과는 현저히 달라서” 체포했다는 황해도 감사의 보고 [『일성록』 1846년 5월 20일(음력) 기록]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잡힌 김 신부 일행은 황해도 감영이 있는 해주로 이송되었다가 감사의 보고를 받은 조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때 신부와 신자들이 칼[목에 채우는 형틀]과 몽두(蒙頭, 종직인의 얼굴을 가리는 보자기)를 썼다는 증언[72회차 김성서]이 있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모방 신부 서한의 출처

이번 지면에서는 연구소에서 간행을 준비 중인 모방 신부 서한집에 실릴 서한들의 출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판독·편집과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방 신부의 서한 42통 중에서 41통은 파리외방전교회 문서고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1통은 교황청 시복 문헌 「시복 건 개시에 관한 심문요항Positio super Introductione Causae」(1857) 중 ‘개요Summarium’에 실려있습니다(이 서한에 대해서는 3월호 지면에 소개하였습니다).

파리외방전교회 문서고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문서고의 서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이 임지로 가는 여정과 사목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본부나 동아시아 대표부로 보낸 공적(公的) 서한들은 선교지역 및 시기별로 구별되어 파리외방전교회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관련 문서철은 500권대, 600권대, 1200권대 등에 산재해 있는데, 모방 신부의 서한은 1260번 문서로 따로 묶여 보관되었습니다. 이는 순교자인 모방 신부의 시복·시성 수속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에서 작업 중인 42통 가운데 31통이 파리외방전교회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모방 신부 문서인 제1260권에 30통, 한국 관련 문서인 제577권에 1통(중복 필사본 2개)이 있습니다.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쓰인 이들 서한은 3통을 제외하면 모두 모방 신부가 직접 쓴 자필 원본이고,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교황청 포교성성(현 인류복음화성) 장관이나 포교성성 마카오 대표부로 보낸 라틴어 서한들의 자필 원본이 교황청 문서고가 아닌 파리외방전교회 문서고의 1260번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중요한 서한들은 다른 사람이 베껴 쓴 필사본이 남아있기도 하고, 교회 잡지나 책에 발췌되어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모방 신부의 서한 일부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서한들은 모두 10통이며, 포교성성 장관이나 포교성성의 마카오 대표부로 보냈고, 모두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1836년 4월 4일 서울에서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서한은 ‘중국과 동인도 주변국들의 사건을 다룬 특별회의 회의록’ 제22권에 인쇄본으로 남아있습니다. 1836년 4월 6일 서울에서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자필 원본과, 발신일이 1836년 12월 초로 추정되는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자필 원본은 ‘인도 주변국과 중국 관계 특별회의에 보고된 원자료’ 제76권에 포함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교성성 마카오 대표부로 쓴 서한 8통이 ‘포교성성 대표부 문서고’(‘칸톤Canton 문서고’)의 문서 제28권으로 분류되어 묶여 있는데, 6통은 자필 원본, 1통은 본인의 필체와 타인의 필체가 함께 있으며, 나머지 1통은 ‘특별회의 회의록’에 실린 서한을 부분적으로 베껴 쓴 필사본입니다. ‘포교성성 대표부 문서고’에 소장된 모방 신부의 서한들은 주교회의의 사료실을 통해 흑백 복사본 형태로 입수하였고, 기존에 판독·편집이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사업단의 도움으로 알게 된 바로는 6월 10일 현재 문서고의 총 30권 중에서 7개만 열람이 가능하고 제28권의 열람은 지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서한집이 간행되기 전에 원본을 입수하여 작업을 보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고”

『병인치명사적』은 전체 24권 중 1·2권은 유실되고 22권이 남아 있으며, 1,400여 명이 넘는 순교자의 사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유실된 1·2권이 『박순집 증언록』 1·2권과 동일한 내용이라 보고,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본) 6책 부록에 관련 자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4권 중 한 권 전체가 한 분의 순교 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권이 있습니다. 바로 13권(대조역주본 2책 669~707쪽)에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이름을 올리신 원 프란치스코, 단 한 분의 사적이 21쪽에 걸쳐 채워져 있습니다. 증언자는 알 수 없지만, 증언을 처음 기록한 날짜(음력 1881년 10월 23일)와 다시 필사한 날짜(음력 1887년 1월 8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원 프란치스코는 충청도 내포 출신으로, 양력 1871년 5월 14일에 수원유수부 감옥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신 순교자입니다. 원 프란치스코는 열 다섯 살이 되었을 때에 이미 교리를 통달하여, 매년 주변 교우들에게 침례기(瞻禮記)를 풀어주고, 주일과 4대침례(瞻禮, 축일), 성모의 모든 침례·모든 천신(天神, 천사)·모든 성인·성녀의 거룩한 날을 알려주어 찬송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매년 전례력에 맞춰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 프란치스코의 생생한 신앙 고백과 어록은 영적 독서 서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을 앞두고, 여러 내용 중 원 프란치스코의 성모 신심을 엿볼 수 있는 어록을 소개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고 오주 예수도 이 군난 중에 우리 사이에 거(居, 계심)하시어 시각(時刻,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떠나심이 없으시니 모든 교형(教兄)은 마땅히 오주 예수와 성모 마리아 전(前, 앞)에 의탁하고 주(님)의 의향(意向, 뜻)을 따르기를 힘쓰고 바라라.”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본) 2책 683쪽)

백신욱 베드로(연구원)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하고 전문연구자의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9호 원고 모집 (마감 연장)

- 투고 마감일(연장) : 2021년 8월 13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